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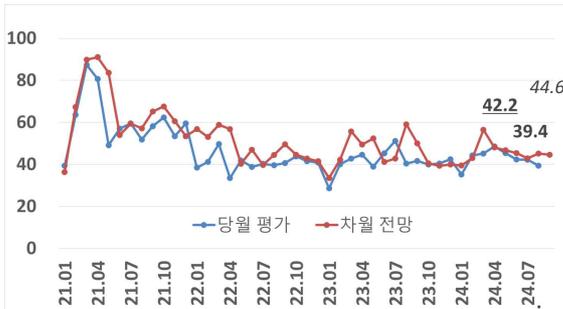
I. 2024년 8월 건설경기평가 및 9월 전망

■ 8월의 경기평가는 소폭 하락, 차월도 미진할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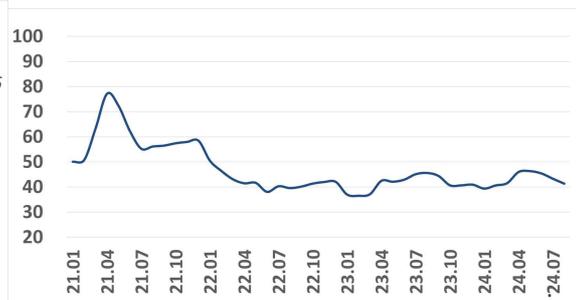
- 8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39.4로 전월(42.2)보다 낮았으며(-2.8p), 9월(44.6)에 대한 기대치도 크지 않았음. 주된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 민간 공사물량의 감소 및 수주악화, 대업종화에 따른 수주경쟁 심화,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노조 등이 지적됨.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2.0(47.7→42.0)으로 전월 대비 하락(-5.7p), 지방은 38.4(40.3→38.4)로 전월 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1.9p).

〈표-1〉 2024년 8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9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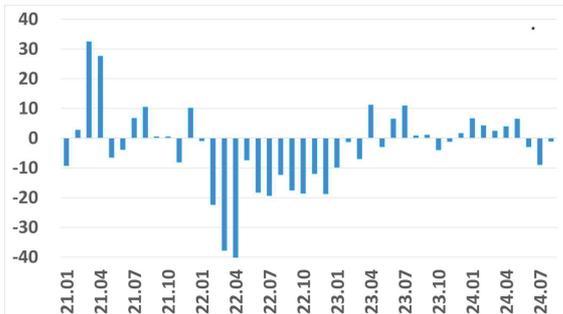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4년 8월 평가	39.4	40.4	42.0	38.4	40.6	47.3
2024년 9월 전망	44.6	50.0	58.0	39.2	50.0	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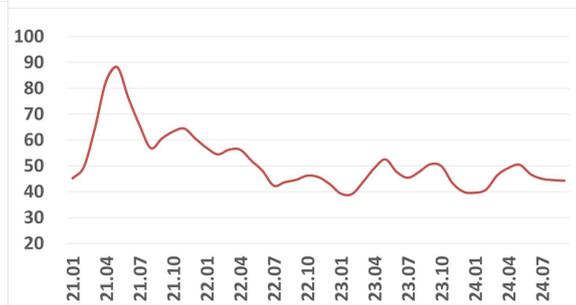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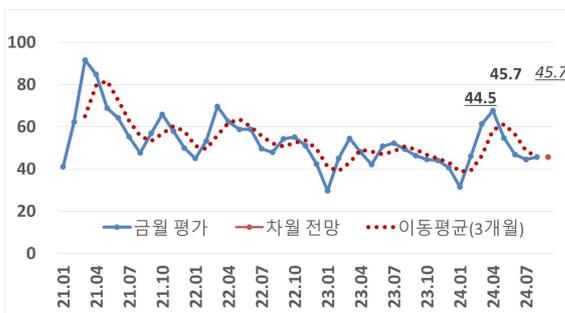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은 전월과 유사, 하도급은 연이어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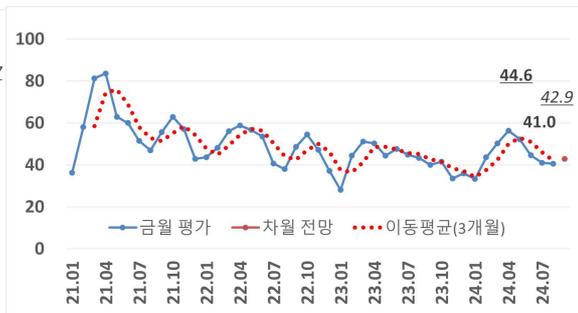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45.7(44.5→45.7)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1.2p), 하도급 수주는 40.6(41.0→40.6)으로 4개월째 소폭의 하락이 지속됨(-0.4). 이번 조사에서는 건설경기의 침체로 수주경쟁이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저가입찰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지적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발주물량의 감소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38.6→62.0)은 개선되었지만(+23.4p), 전월의 하락폭이 컸다는 것을 감안해야 함. 지방(46.5→39.2)은 전월보다 악화됨(-7.3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도 수도권(43.2→62.0)의 개선폭이 컸지만(+18.8), 전월의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볼 수 있음. 마찬가지로 지방(40.3→32.0)은 전월보다 악화됨(-8.3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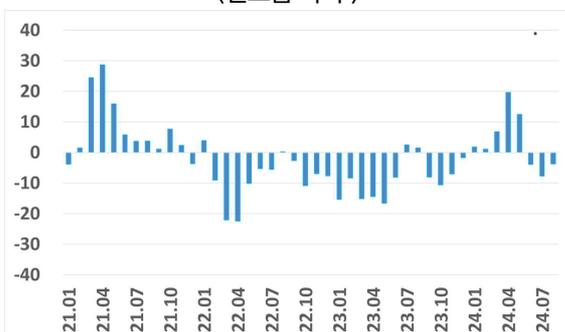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4년 8월 평가	45.7	49.4	62.0	39.2	75.0	41.8
	2024년 9월 전망	45.7	54.5	56.0	41.6	56.3	52.7
하도급 수주	2024년 8월 평가	40.6	43.3	62.0	32.0	71.9	49.1
	2024년 9월 전망	42.9	50.0	58.0	36.8	59.4	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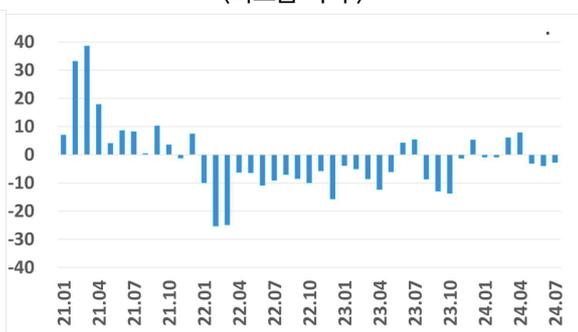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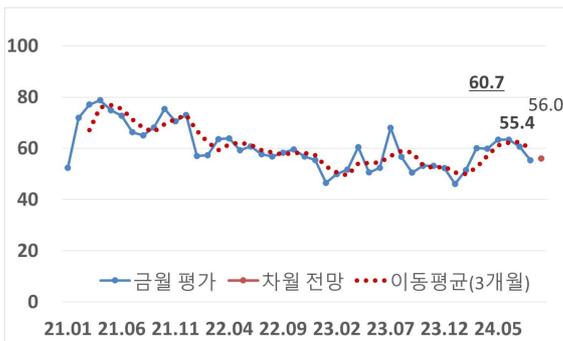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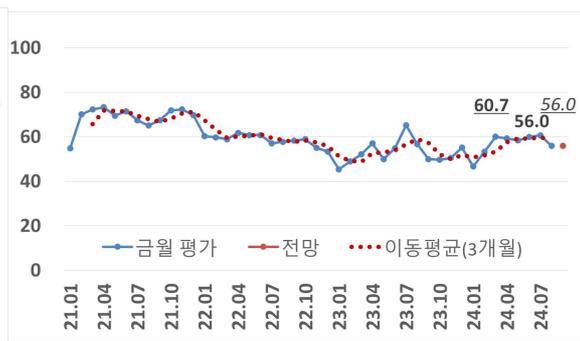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5.4(60.7→55.4)로 전월에 이어 하락했으며(-5.3p), 차월(56.0)은 금월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0.6p). 대금수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업황의 침체에 따른 운전자금의 조달문제가 하도급사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확산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수도권(45.5→64.0)은 전월보다 개선(+18.5p), 지방(65.9→52.0)은 하락함(-13.9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6.0(60.7→56.0)으로 전월보다 하락했으며(-4.7p), 차월(56.0)은 금월의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0.0p). 이번 조사에서도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부각한 업체는 없었으나 개별 업체마다 상황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수도권(59.1→68.0)은 전월보다 개선(+8.9p), 지방(61.2→51.2)은 크게 하락함(-10.0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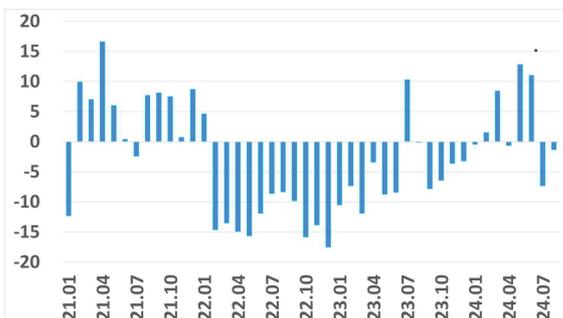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4년 8월 평가	55.4	56.7	64.0	52.0	71.9	58.2
	2024년 9월 전망	56.0	60.7	70.0	50.4	71.9	67.3
자금조달	2024년 8월 평가	56.0	56.7	68.0	51.2	75.0	60.0
	2024년 9월 전망	56.0	57.3	72.0	49.6	75.0	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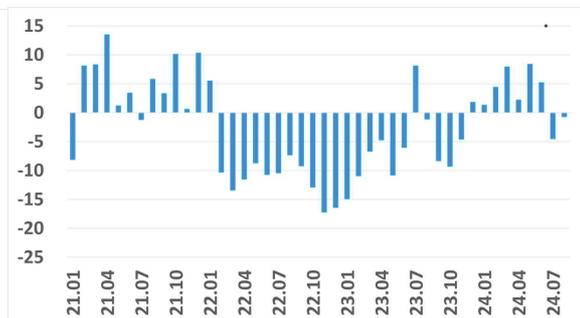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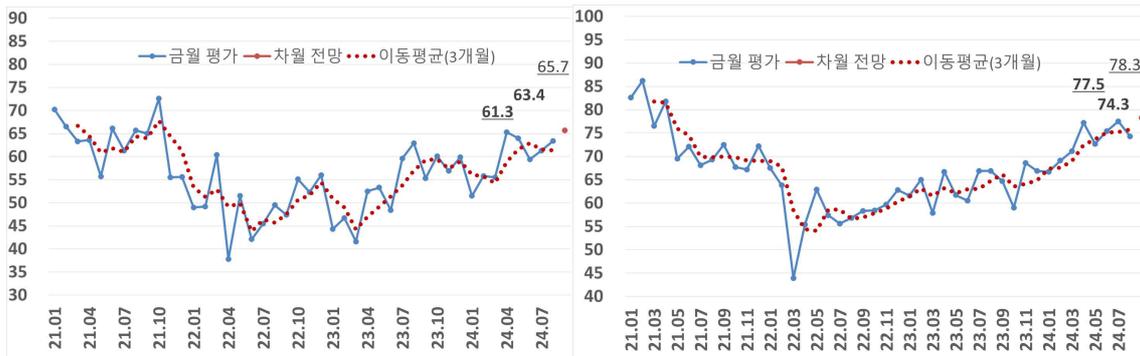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은 소폭 개선, 기능인력수급은 소폭 하락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63.4(61.3→63.4)로 전월에 이어 소폭 상승했지만(+2.1p), 여전히 전년 동월(62.9)의 수준에서 개선되지는 못했음(+0.5p).
 - 수도권(68.2→66.0)은 전월보다 하락(-2.2p), 지방(58.9→62.4)은 상승함(+3.5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²⁾는 74.3(77.5→74.3)으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으며(-3.2p), 전년 동월(66.9)보다 높았음(+7.4p). 목수, 철근공 등의 인력수급문제는 꾸준히 지적됨.
 - 수도권(77.3→68.0)은 전월보다 하락(-9.3p), 지방(77.5→76.8)은 전월 수준임(-0.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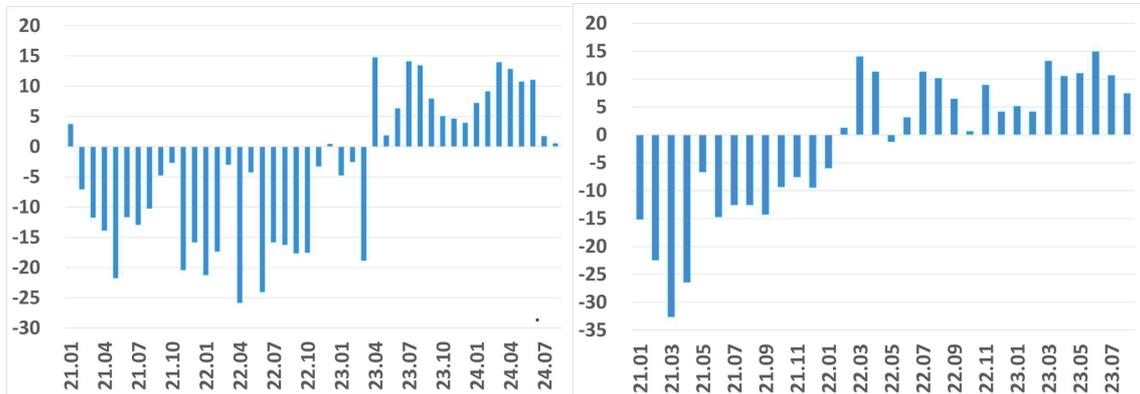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총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4년 8월 평가	63.4	62.9	66.0	62.4	59.4	70.9
	2024년 9월 전망	65.7	60.7	62.0	67.2	50.0	76.4
인력수급	2024년 8월 평가	74.3	66.9	68.0	76.8	68.8	83.6
	2024년 9월 전망	78.3	68.5	62.0	84.8	59.4	96.4



〈인건비 체감〉

〈인력수급〉



〈인건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인력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2)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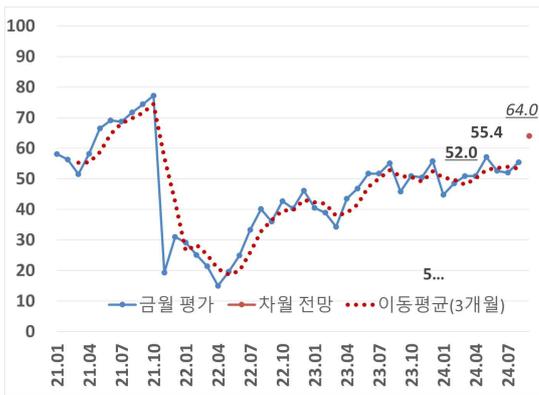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수급³⁾)

■ 자재비지수는 소폭 상승, 자재수급지수는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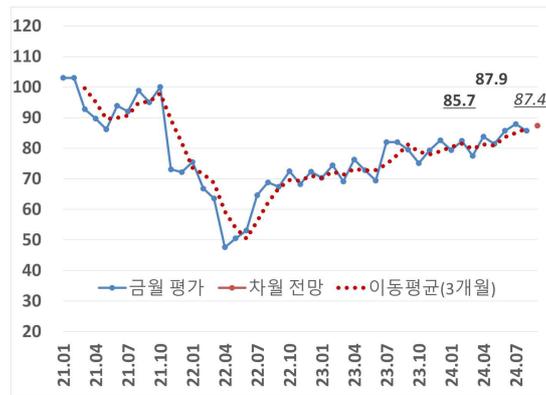
- 자재비⁴⁾ 경기실사지수는 55.4(52.0→55.4)로 전월보다 높았으며(+3.4p), 차월(64.0)에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8.6p). 다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 수도권(61.4→60.0)은 소폭 하락(-1.4p), 지방(48.8→53.6)은 일부 개선됨(+4.8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5.7(87.9→85.7)로 소폭 하락했으며(-2.2p), 차월(87.4)에는 금월의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1.7p). 일부 응답업체는 자재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함.
 - 수도권(86.4→78.0)은 전월보다 악화(-8.4p), 지방(88.4→88.8)은 전월의 수준임(+0.4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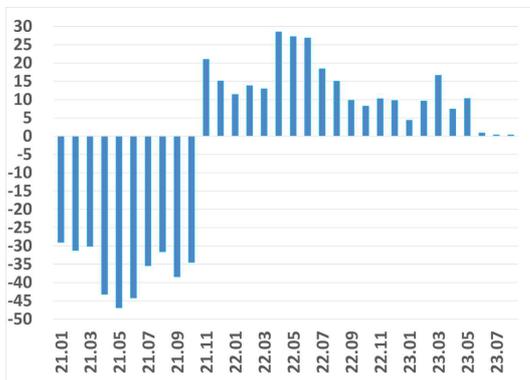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4년 8월 평가	55.4	55.1	60.0	53.6	53.1	67.3
	2024년 9월 전망	64.0	56.7	64.0	64.0	59.4	78.2
자재수급	2024년 8월 평가	85.7	82.0	78.0	88.8	71.9	96.4
	2024년 9월 전망	87.4	80.3	80.0	90.4	71.9	1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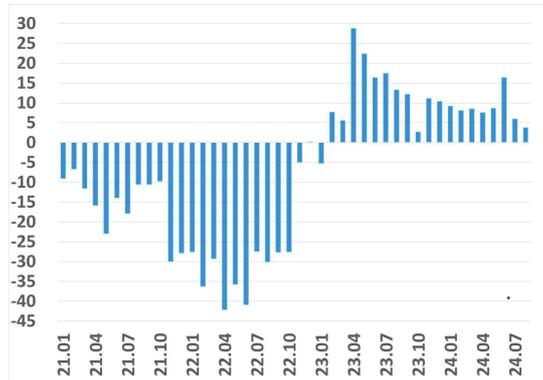
〈자재비 체감〉



〈자재수급〉



〈자재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3)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음(코로나 이전 시기의 지수는 대략 100정도 수준이었음).

4)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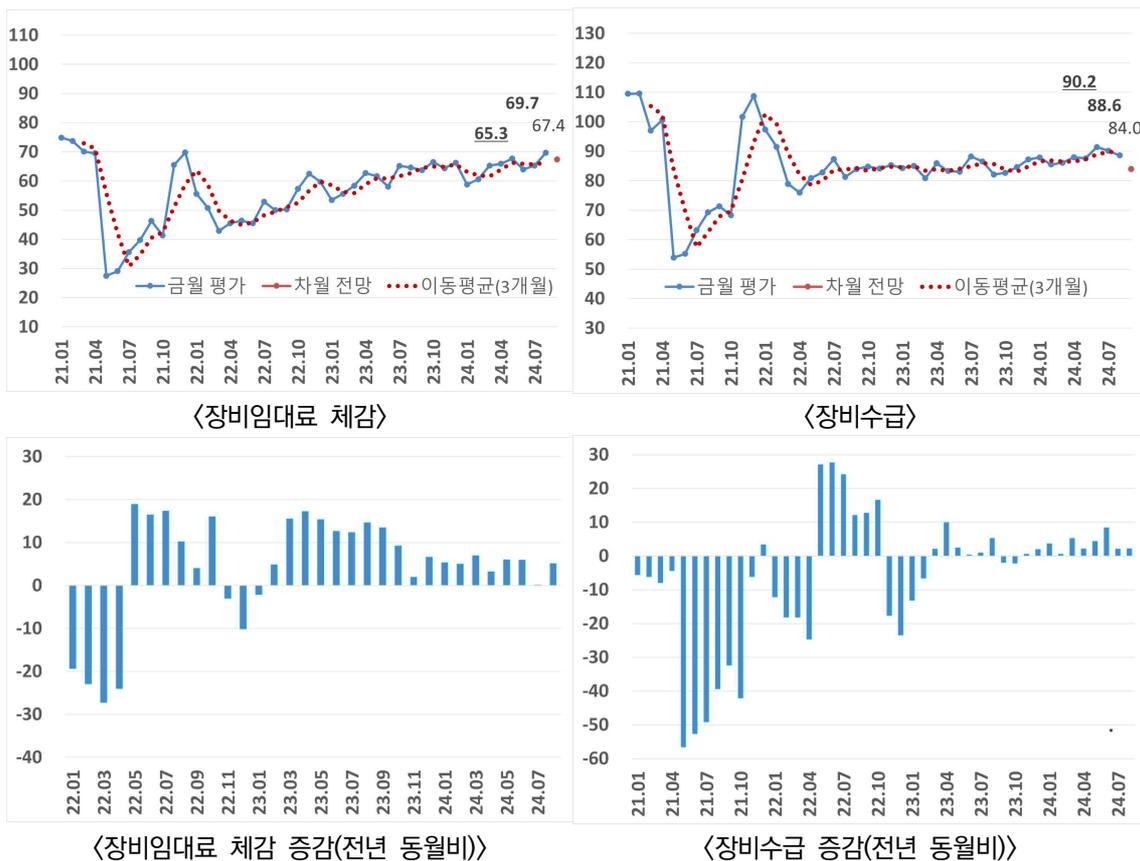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는 소폭 개선, 장비수급지수는 전월 수준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69.7(65.3→69.7)로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며(+4.4p), 차월(67.4)도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됨(-2.3p).
 - 수도권(75.0→72.0)은 하락(-3.0p), 지방(62.0→68.8)은 다소 개선됨(+6.8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8.6(90.2→88.6)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1.6p), 차월(84.0)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4.6p).
 - 수도권(95.5→82.0)은 전월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13.5p), 지방(88.4→91.2)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됨(+2.8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 임대료 체감	2024년 8월 평가	69.7	64.6	72.0	68.8	65.6	76.4
	2024년 9월 전망	67.4	68.5	68.0	67.2	56.3	81.8
장비수급	2024년 8월 평가	88.6	86.5	82.0	91.2	71.9	107.3
	2024년 9월 전망	84.0	85.4	76.0	87.2	65.6	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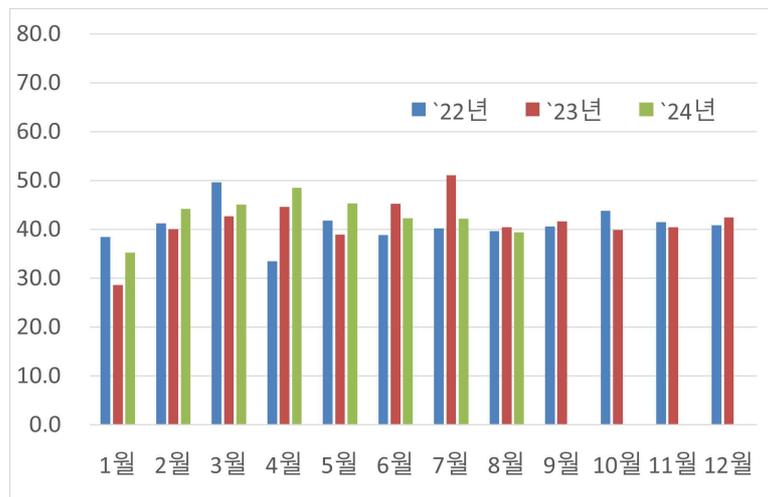


참고: 2024년 8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39.4	40.4	42.0	38.4	40.6	47.3	
	차월 전망	44.6	50.0	58.0	39.2	50.0	56.4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45.7	49.4	62.0	39.2	75.0	41.8
		차월 전망	45.7	54.5	56.0	41.6	56.3	52.7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40.6	43.3	62.0	32.0	71.9	49.1
		차월 전망	42.9	50.0	58.0	36.8	59.4	50.9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55.4	56.7	64.0	52.0	71.9	58.2
		차월 전망	56.0	60.7	70.0	50.4	71.9	67.3
	자금조달	금월 평가	56.0	56.7	68.0	51.2	75.0	60.0
		차월 전망	56.0	57.3	72.0	49.6	75.0	70.9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63.4	62.9	66.0	62.4	59.4	70.9
		차월 전망	65.7	60.7	62.0	67.2	50.0	76.4
	인력수급	금월 평가	74.3	66.9	68.0	76.8	68.8	83.6
		차월 전망	78.3	68.5	62.0	84.8	59.4	96.4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55.4	55.1	60.0	53.6	53.1	67.3
		차월 전망	64.0	56.7	64.0	64.0	59.4	78.2
	자재수급	금월 평가	85.7	82.0	78.0	88.8	71.9	96.4
		차월 전망	87.4	80.3	80.0	90.4	71.9	105.5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69.7	64.6	72.0	68.8	65.6	76.4
		차월 전망	67.4	68.5	68.0	67.2	56.3	81.8
	장비수급	금월 평가	88.6	86.5	82.0	91.2	71.9	107.3
		차월 전망	84.0	85.4	76.0	87.2	65.6	98.2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최근 3년간의 SC-BSI 비교〉